

[TV]

TV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세련된 화술을 가르쳐 드립니다”

광주MBC '말미잘' 화제... 주철환 등 유명 인사 화술 노하우도 배워

'말미잘'이 뜨고 있다. 호불호를 막을 수 없는 화술이 아니다. 얼장, 품쟁에 이어 '말쟁'이 뜨고 있는 요즘 "말"을 아름답게(美) '잡' 하자'고 외치는 광주MBC '말미잘'(연출 관관주·민수영, 진행 김대일)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매 회 대학생 네 명을 초청해 그들의 개와 말쑥함을 엿보는 '말미잘'(매주 일요일 오전 9시55분)은 1분 스키치와 개기, 면접교실,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나운서 출신으로 스키치 컨설턴트로 활약 중인 나선희, 면접 컨설턴트 남경현, 이미지 메이킹 및 프레젠테이션 강사 문지영 씨가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출연자의 실력을 평가한다.

화술에 능한 유명 인사를 초청해 화술의 노하우를 들어보는 '화술의 정석' 시간도 마련돼 있다. 지금까지 이미지 컨설턴트 정연아, 원광대 얼굴인상학과 주선희 교수, 취업 전문 사이트 인크루트 신상훈 씨 등이 다녀갔다.

오는 20일 방송된 14회 녹화에는 PD에서 교수로 변신한 주철환(51)이 화제대 언론홍보영상학부교수가 출연해 품, 강, 까, 피, 꿀, 끈, 끈 등 한 글자 키워드를 주제로 화술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 교수는 "말미잘"은 기획의도가 뛰어난 프로그램이라며 "면접이나 입사를 위한 서바이벌 전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 '소통'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미잘'이 되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말미잘"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대학생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실화된 '면접용 멘트'가 아니라 대학생의 참신함과 독특함을 엿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매회 쏟아진다. 특히 면접 등을 앞두고 말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만큼 참가 대가 인원만 20여 명에 이를 정도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민석(27·전남대 경영학부4)씨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떨리는 일이면서도 설레는 일인 것 같다"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민수영(여·27) PD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지역 대학생들에게 세련된 화술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매회 쏟아진다. 특히 면접 등을 앞두고 말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만큼 참가 대가 인원만 20여 명에 이를 정도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민석(27·전남대 경영학부4)씨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떨리는 일이면서도 설레는 일인 것 같다"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민수영(여·27) PD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지역 대학생들에게 세련된 화술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성기자 ksj@kwangju.co.kr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Living TV 뉴스매거진 리빙투데이 (오전 11시 50분)
한 주간의 여행과 레저, 문화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8월 셋째 주 방송은 새롭게 단장한 여의도 63시티 디지로그 전시장에서 서울 시민의 휴식처인 한강의 모습과 주변 풍광을 전한다.

창업 24년 국제보청기
컴퓨터로 귀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보청기" 국제보청기가 자연의 소리를 들려 드립니다.
서석점(동구청 남동생당사) (062) 227-9940
충장점(충파권리안) (062) 225-9970

케이블·위성TV 16일

Large table listing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s for August 16th. Columns include YTN, MBN, KTV, MBC MOVIES, SBS 드라마, OCN, and various other channels like EBS1, KBS KOREA, etc.

PBC 광주광역시방송
www.kjpbcc.com

TBN 교양방송
www.tbn.com

BBS 불교방송
www.bbs.com